



칭하이 무상사

# 추천년의 사랑



 추천사 

시는 예술적으로, 문학적 양식에 맞춰 영혼을 표현, 반영한 것이다. 우즈(無子)의 시는 마치 홍진(紅塵) 속에 피어난 맑은 연꽃과 같이, 폭풍우 치는 바다를 밝게 비추는 등대와 같이, 그리고 먹구름 낀 하늘을 가로지르는 무지개와 같이 세인의 선입견을 훌쩍 뛰어넘는다.

우즈의 시 문체는 때로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부드럽고 온화하며, 때로는 수천 마리의 말이 달리는 듯 생동감이 넘치고 역동적이다. 그의 시는 우아하면서도 탈속적인 특성이 가득하다. 단순한 대화체의 언어로 표현된 이 시들은 종종 그 안에 담긴 심오한 의미나 순수한 서정미와 모순을 이루기도 한다.

시인은 신선한 시어 선택과 조화로운 운율로 낭만적이고 인상적인 시풍을 만들어 낼 뿐 아니라 아름다운 천상의 세계를 창조해 냈다. 무엇보다도, 이들 시는 완전히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듯한데도 그 여운이 대단히 황홀하다.

이들 시는 독특한 예술성과 더불어 종종 시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위대한 자비심을 전해 준다. 따라서 시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시에 드러난 사랑은 독자의 영혼을 고양시켜 궁극적인 진선미의 경지로 인도해 줄 것이다.

나는 독자들에게 이 시집을 적극 추천하며, 독자들도 이 시들에 담긴 영적 메시지와 낭만적인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시집을 읽는 독자들은 우즈 시인의 마음에서 우러난 진선미를 감상함으로써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 구민(顧敏) 포모사(대만)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전(前) 유네스코 국제도서관협회연구소연맹  
(IFPLAI) 상임위원회 회원, 전(前) 아시아태평양  
국회사서협회(APLAP) 회장

주: '우즈(無子)'는 칭하이 무상사의 필명으로 '불사(不死), 영생(永生)'을 뜻한다.



## 나의 집

(칭하이 무상사가 짠 시절에 지은 시)  
어울락어 원시 Nhà Tõi

산허리에 자리 잡은 아늑하고 자그마한 나의 집  
마음을 달래 주는 미풍, 하늘을 살포시 덮은 부드러운 구름  
꽃향기, 푸르른 풀 냄새 천지에 진동하고  
소나무는 달의 여신들 춤에 맞춰 황홀한 콧노래 부르네.

나비들 향기로운 정원에서 나풀거리고  
꽃들이 가느다란 가지 장식하니  
분홍, 노랑, 진홍, 보라, 복숭아빛  
오, 참으로 향긋하여라, 천국으로 가는 길 내내!

푸른 산꼭대기에서 환히 빛나는 달  
허공 속에 퍼지는 평화의 노래  
황금빛 가락은 바람 타고  
청명한 하늘로 피어오르니, 참으로 평온하여라.

포용처럼 친밀한 숲 속 오솔길  
그대의 우아한 발걸음 안아 꿈같은 나날로 들어 올리네.  
저 멀리서 바다는 시에 장단을 맞추어  
환상적인 이 밤을 나와 함께 노래하네.

봄이면 야생화 온 산을 뒤덮고  
여름엔 매미 소리 달콤한 몽상으로 이끌며  
가을이면 카나리아빛 잎새들 창을 수놓고  
겨울에는 불꽃들이 뜨거운 불 속에서 신나게 노래하지.

사계절 내내 내 마음엔 꽃이 피고  
구름들도 어디서나 다가와 인사를 건네네.  
사랑하는 벗들로 정은 한층 깊어지고  
동물과 새들, 가까운 지인처럼 어울리네!

달 모양의 비파 꺼내 들고  
기쁨에 찬 화음 올리니  
영혼은 사랑의 산을 따라 솟아오르고  
즐거움 마음은 노래 가락 따라가노라.

트랄랄라팔라  
팔랄라트랄라  
트랄랄라팔라  
팔랄라트랄라.





시인의 여권 집에서, 1980년대 초, 독일 뮌헨  
사진 제공: 시인의 전 남편

사촌 동생과 함께하신 시인  
14세 때, 어울락 봉선



## 아기 돼지의 말


(칭하이 무상사가 20대 후반에 지은 시)  
어울락어 원시 Lôi Lợn Con

당신을 처음 만난 건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날.  
분홍빛에 통통한 나, 아주 토실토실했어요.  
난 엄마와 까불까불 장난치고 놀았어요.

당신은 날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칭찬했어요. "와, 정말 통통하고 귀엽구나!"  
당신은 날이면 날마다 들러  
시원한 물과 맛있는 채소를 주곤 하셨지요…….

엄마와 난 정말 감동했어요  
황금보다 귀한 당신의 친절에.  
당신의 관심과 보호 아래  
나는 평화로이 살아갔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토실토실해졌지요.  
그저 먹고, 쉬고, 놀고…….



A rural scene with thatched-roof huts and pigs in a field. The background shows a large thatched-roof hut with a wooden fence in front. In the foreground, several pigs are grazing in a green field. The sky is blue with some clouds.

오늘 새벽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구름이 지평선 너머로 떠다니고  
난 엄마와 꼭 붙어 있었어요  
다가오는 비극은 알지도 못한 채!

호랑이와 코끼리같이 힘센  
긴장한 두 청년이  
작은 내 몸을 무시무시한 우리 속에  
납작 밀어 넣었어요.  
도망칠 길도 없는데  
오, 하느님, 이게 무슨 지옥인가요?

나는 무섭고 겁에 질려 울부짖었어요.  
엄마, 엄마, 살려 주세요.  
오, 보호자님, 빨리 와서 보호해 주세요.  
제 목숨을 구해 주세요! 저는 아직 어리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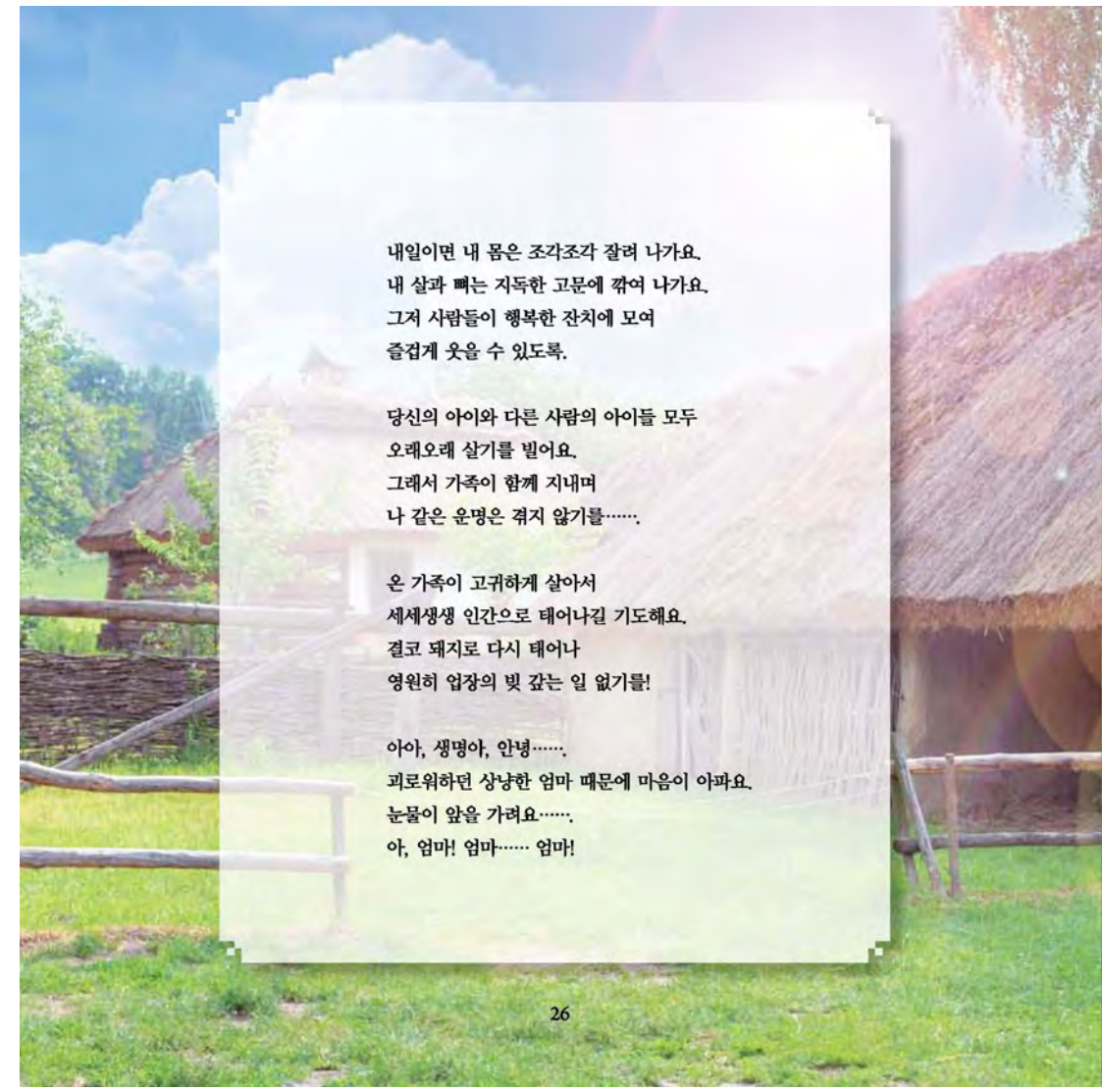
엄마는 슬픔에 겨워 울부짖고  
그 두 눈엔 절망의 눈물이 가득했어요.  
드넓은 천국도 이 끔찍하고 가슴 에는 고통을  
다 담진 못할 거예요!

나의 보호자는 등을 돌렸고  
그의 두 손은 돈을 세느라 바빴어요.  
불행한 나는 차 집간을 뒹굴었어요.  
찢어진 가슴이 육신의 불행보다 더 아팠어요!

두 청년이 놀려댔어요.  
이 새끼 돼지 정말 맛있겠다!  
내일 애를 잡아서  
아내가 아기 낳은 것을 축하해야지!

아, 삶은 어쩌면 이렇게도 모순적인지!  
내 영혼은 산산이 부서지고  
가슴속엔 눈물이 흘러요  
핏물이 개울을 이루듯.

당신이 날 사랑해서  
다 자라도록 키워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건 속임수,  
그저 돈벌이였을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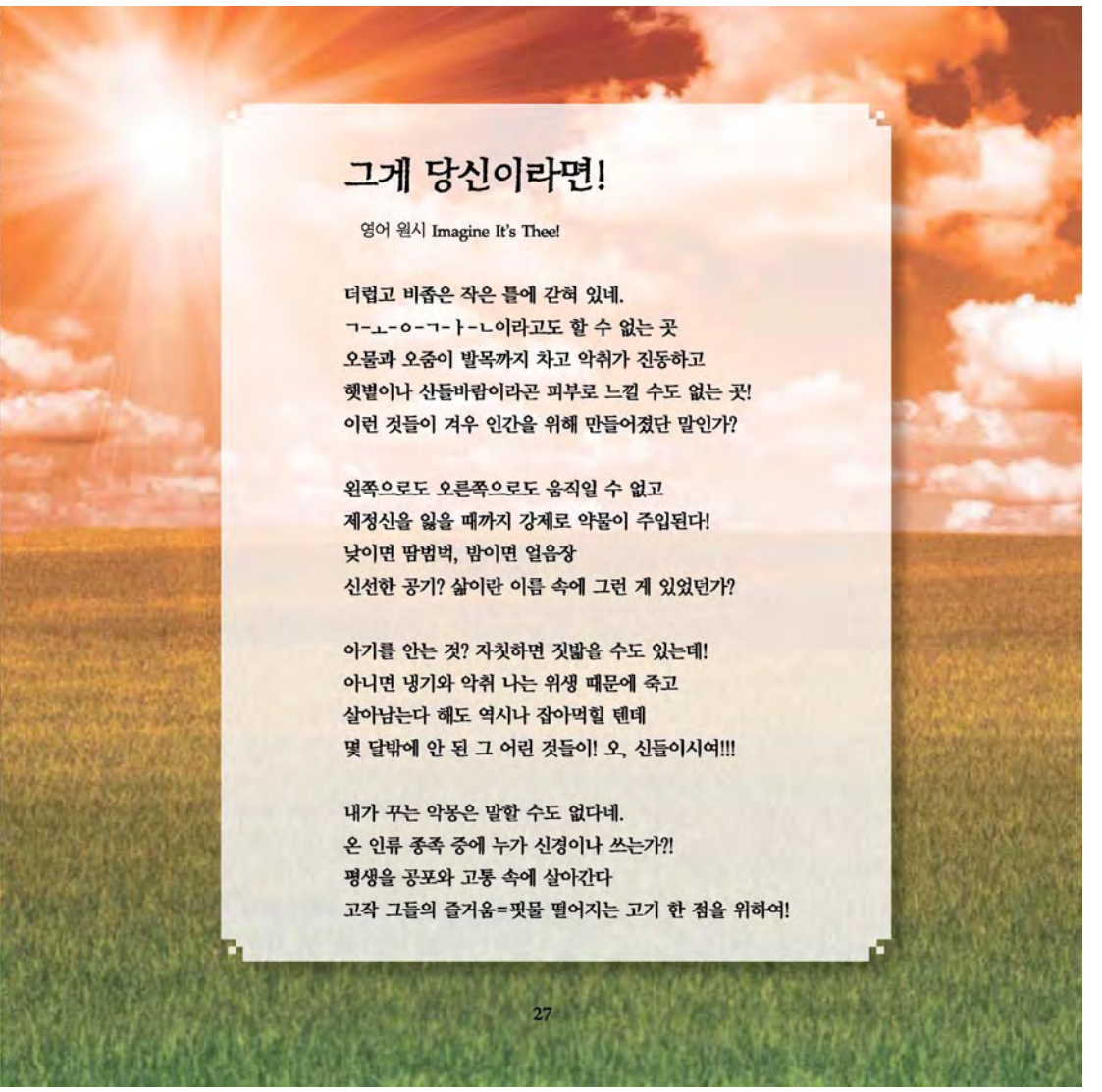


내일이면 내 몸은 조각조각 잘려 나가요,  
내 살과 뼈는 지독한 고문에 꺾여 나가요,  
그저 사람들이 행복한 잔치에 모여  
즐겁게 웃을 수 있도록.

당신의 아이와 다른 사람의 아이들 모두  
오래오래 살기를 빌어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지내며  
나 같은 운명은 겪지 않기를…….

온 가족이 고귀하게 살아서  
세세생생 인간으로 태어나길 기도해요.  
결코 돼지로 다시 태어나  
영원히 업장의 빛 갠 일 없기를!

아아, 생명이야, 안녕…….  
괴로워하던 상냥한 엄마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눈물이 앞을 가려요…….  
아, 엄마! 엄마…… 엄마!



## 그게 당신이라면!

영어 원시 Imagine It's Thee!

더럽고 비좁은 작은 틀에 갇혀 있네.  
기-고-오-기-기-니이라고도 할 수 없는 곳  
오물과 오줌이 발목까지 차고 악취가 진동하고  
햇볕이나 산들바람이라곤 피부로 느낄 수도 없는 곳!  
이런 것들이 겨우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단 말인가?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고  
계정신을 잃을 때까지 강제로 악물이 주입된다!  
낮이면 땀범벅, 밤이면 얼음장  
신선한 공기? 삶이란 이름 속에 그런 게 있었는가?

아기를 안는 것? 자칫하면 짓밟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냉기와 악취 나는 위생 때문에 죽고  
살아남는다 해도 역시나 잡아먹힐 텐데  
몇 달밖에 안 된 그 어린 것들이! 오, 신들이시여!!!

내가 꾸는 악몽은 말할 수도 없네.  
온 인류 종족 중에 누가 신경이나 쓰는가?!  
평생을 공포와 고통 속에 살아간다  
고작 그들의 즐거움=핏물 떨어지는 고기 한 점을 위하여!

흔들거리는 트럭에서 겨우 버티다  
어디로든 실려 가 사지가 벌러져 찢긴다.  
아니면 천장에 한쪽 다리로 매달리든가!  
극악한 범죄자나 된 듯 목구멍을 찢리고  
내장과 피가 사방으로 쏟아져 나온다  
통곡과 애원, 피로움에 찬 비명소리 가득한 가운데!

어찌 그 광경을 견딜 수 있는가, 즐길 수 있는가?  
다들 병어리에 귀머거리, 장님이라도 되었나?  
언제부터 인간이 그토록 잔인해졌나  
사랑의 품성, 선량한 품성을 모두 잃어버렸나?

발로 차고, 찌르고, 저미고, 고문하니  
오, 그 고통, 도무지 견딜 수가 없구나!  
살려 달라고 울부짖는다……! 거기 누구 좀 없어요……?!  
어찌 사방 곳곳엔 온통 피, 피, 피뿐인가.  
어둡고 공포만 가득한 짝 막힌 이 벽 안에는  
도끼와 그림자 말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힘센 그림자들, 날카로운 도끼들  
나는 겁에 질렸네. 작은 나는 벌벌 떨며 속수무책일 뿐.

오! 지옥이 있는지 몰랐다면  
와서 보시라, 이곳이 바로 그곳이니!  
사랑하는 인간 친구들이여,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왜, 왜, 왜 당신네는 나를 괴롭히고 먹어야만 하는가?

그게 당신이라고 생각해 보라.  
그게 당신의 가족 중 하나라고  
생각해 보라!





**작곡가 전 광 록(Trần Quang Lộc):**

칭하이 무상사의 시는 그 자체가 부드러운 세계이며, 감정을 일깨우는 사랑으로 가득하다. 이 덧없는 세상에서 그녀의 시는 사람의 영혼을 천상계로 인도하는 삼매의 햇불과 같으며, 시원하고 명상적인 관조로 충만해 있다. 그녀의 시어는 5음계 음악권 삶의 음과 양을 반추하며, 꿈과 현실, 유형(有形)과 무형(無形), 고통과 기쁨 간에 수시로 번덕을 부리는 반짝이는 이슬방울을 담은 선율을 자아낸다.

칭하이 무상사의 『천년의 사랑』에 수록된 46편의 시는 개인의 내적인 영적 삶에서는 물론 꽃과 땅, 하늘 사이에서도 찬란하게 빛난다. 칭하이 무상사의 광대한 시 세계 속에서 독자는 ‘자연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간에 존재하는 따사로운 연결과 공통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은 우주를 떠돌아 다녔네  
내 사랑, 당신과 다시 만나길 갈망하며,  
수천 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기다리건만  
나의 현신이 결코 시들지 않듯 시간도 끝없이 계속되는구나!

~천년의 사랑  
칭하이 무상사